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6호 8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第 16 호 (254)
1964년 8월 (하)

(반 월 간)

차 례

학풍을 수립하자

공산주의자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 투사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데 필요한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서는 부단히 학습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첫째 가는 혁명 임무이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간부들의 학습에 대하여 항상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으며 김 일성 동지는 최근에 있은 평남도 당 전원 회의에서 또다시 전 당에 학풍을 수립할 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였다.

전 당에 학풍을 수립하는 것—이것은 현시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 자체가 요구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으며 근로자들의 정치 의식 수준과 기술 문화 수준이 훨씬 제고되였다.

우리 사회의 이와 같은 급속한 변화 발전은 혁명의 지휘 성원인 간부들의 정치 리론 수준과 지도 능력을 그에 상응하게 빠른 속도로 높일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는 행정에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이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강구하여 왔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전 당이 학습할 데 대한 문제를 초미의 문제로 제기하고 지도 일'군들의 정치 리론 실무 수준을 최단 기간 내에 급속히 제고시킬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특히 우리 당 제 4 차 대회는 조선 혁명 수행에서 달성한 위대한 승리와 함께 당 사상 사업,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서 달성한 성과를 총화하고 전 당이 학습할 데 대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리 하여 전 당에 학습하는 기풍이 서게 되고 간부들 속에서 학습 열의가 높아졌으며 일'군들의 리론 수준과 지도 능력이 급속히 제고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일'군들의 정치 리론 수준과 지도 능력을 그에 따라 세울 데 대한 요구는 여전히 우리 앞에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그것은 특히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더 높은 단계에 들어 선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에 들어 섰다. 지금은 빈 주먹을 가지고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던 때도 아니며 호미와 낫만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때도 아니다.

우리의 인민 경제는 그의 규모가 전례 없이 방대해지고 더욱 조직화되였으며 기술 혁명이 촉진됨에 따라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선진 기술로 튼튼히 장비되였다. 큰 규모의 협동 경리로 전환된 농촌에서도 수리화,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끝나고 기계화와 화학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 앞에는 또한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에 해결하여야 할 더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기본 과업,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로동 계급의 지원 하에 농촌에서도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더우기 우리는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후반기의 전투적 과업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는 투쟁에서 다시 한 번 커다란 비약을 일으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여야 한다.

실로 우리 사회는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으며 할 일은 많아지고 더욱 어려워졌다. 이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매개 일'군들이 맑스-레닌주의와 당 정책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 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지식을 습득함이 없이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며 경제를 관리 운영하기 어렵게 되였다.

현시기 전 당에 학풍을 수립할 데 대한 요구가 그렇게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또한 조성된 혁명 정세와도 관련된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이 날로 로골화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분렬 책동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지도 일'군들의 정치 리론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우는 것은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기치를 고수하며 조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전 당에 학풍을 수립할 데 대한 문제—이것은 오늘에 와서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우리 혁명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문제로 되였다.

오늘 당의 통일과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화되고 전 당과 전 사회에 당'적 사상 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당의 령도 하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움직이고 있는 현 조건 하에서 일'군들의 지휘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열'쇠로 된다.

그러므로 현시기 우리 당은 중앙의 간부들로부터 공장과 농촌의 지배인, 관리 위원장, 작업반장에 이르는 모든 지도 일'군들이 각종 교육 체계에 망라되거나 자체 학습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광범한 지식을 소유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 교양망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였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자기가 어느 부문에서 일하거나를 막론하고 전 당에 학풍을 수립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그 뜻을 높이 받들고 자체 학습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를 개조하고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자면 우선 간부들 자신부터 자기의 사상을 개조하여야 하며 사회의 발전 법칙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우리가 학습하지 않고서는, 즉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298 페지).

모든 일'군들은 우선 어떤 복잡한 조건 하에서도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깊이 연구 체득하여야 하며 더우기 현시기 우리의 주요한 혁명 과업인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매개 일'군들이 사상적으로 단련되고 리론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정치 활동가로 될 수 있으며 군중을 확신성 있게 옳은 길로 이끌고 나갈 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특히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인 우리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을 심오하게 학습하여야 한다.

당 정책과 수상 동지의 로작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여야만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로서 일편단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싸우는 당'적 사상 체계로 튼튼히 무장할 수 있으며 어느 때,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여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혁명적 립장, 계급적 립장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정치 지식 뿐만 아니라 오늘 절실하게 요구되는 경제 지식과 기술도 습득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우리 일'군들이 높은 경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함이 없이는 발전된 대규모 사회주의 경리를 옳게 운영할 수 없으며 전면적 기술 혁명을 강력히 촉진시킬 수 없다.

《기술 혁명의 시대에 기술을 모르는 사람은 병신이나 다름 없다. 모두가 다 한 가지 이상의 기술과 과학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다》(김 일성, 《현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 기술 혁명의 시기에 상응하게 우리 일'군들의 지도 능력을 급속히 제고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이 모든 과업은 오직 전 당에 철저한 학풍을 수립할 때에라야만 성과 있게 해결될 수 있다.

일'군들 속에서 학풍을 철저히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은 학습에 대한 그들 자신의 자각성을 높이는 것이다.

오늘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이 학습해야 할 량은 많은데 사업은 바쁘고 시간은 매우 긴장되여 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하는 시간이란 따로 주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형편에서 학습을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각오 여하에, 학습에 대한 자각성 여하에 달려 있다.

모든 일'군들은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더는 전진할 수 없으며 맡겨진 혁명 임무를 감당해 낼 수 없으며 결국은 당 앞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쉬임 없이 일하면서 배워야 하며 배우면서 일하여야 한다.

항일 빨찌산들은 원쑤들과의 가렬한 전투의 나날에도, 무서운 기아와 추위가 시시각각으로 엄습하는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한시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꾸준히 배우고 또 배웠다.

그들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 가는 의무이라는 김 일성 동지의 말씀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혁명적 리론과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모든 정력을 쏟아 바쳤다.

우리는 항일 빨찌산들의 이 훌륭한 학습 기풍을 본 받아야 한다.

혁명을 위하여 쉬임 없이 투쟁하며 끊임 없이 배우는 것—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의무이며 고유한 품성이다.

학습을 게을리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혁명 투쟁을 피하거나 중단하는 것과 같다.

오늘 당은 학습하는 것을 당원들과 간부들의 당성의 기본 척도의 하나로, 당 생활의 기본 문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모든 간부들은 학습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동시에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학습하여야 하며 그것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책임적 지위에 있는 일'군들은 그가 당 앞에서 맡고 있는 혁명 임무와 그의 위치로 보아 응당 누구보다도 더 잘 학습하여야 하며 이신작칙하여야 한다.

학습에서의 책임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해당 기관, 기업소 일'군들의 학습에 강한 자극을 주며 그들 속에서 학습을 생활화하고 철저한 학풍을 수립케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 일'군들은 우선 자기 자신이 학습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는 동시에 학습 계획의 수립으로부터 그의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모든 일'군들의 모범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학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학습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학습에 대한 당 조직들의 목적 의식적인 지도와 통제는 학습 기풍을 더 공고화할 수 있게 하며 학습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게 한다.

학습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은 정상적인 총화이다.

총화는 간부들에게 학습에 대한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당 조직들로 하여금 그들의 학습 정형을 정확히 료해할 수 있게 하며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방조를 줄 수 있게 한다.

특히 자습을 기본으로 하는 방향으로 학습 방법을 전환시키고 있는 오늘 간부들의 학습에 대한 정상적인 총화는 학습 조직에서의 기본 문제의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당은 간부들이 일상적으로 공부하는가 안 하는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총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 조직들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 체계에 망라되여 있는 일'군들은 거기에서 빠짐 없이 시험을 치게 하며 당 교양 망에 망라되여 있는 일'군들도 정상적으로 자기의 학습 정형을 총화 받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당 조직들은 간부들의 학습 정형이 그들의 당 생활 총화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되게 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그야 말로 자각적인 태도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학습하고 총화하는 데 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학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당 조직들이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의 하나는 간부들의 자습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매개 간부들은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정한 목표와 계획도 없이 이것 저것 닥치는 대로 학습한다면 체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으며 학습에 대한 흥미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체계적인 학습은 반드시 당면 학습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만 체계적인 학습이 목적 지향성 있게 진행되면서 실천적 문제와 잘 결부될 수 있으며 또한 당면 학습도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당 조직들은 매개 일'군들의 준비 정도, 희망, 사업의 특성들을 잘 고려하여 그에 맞게 학습 방향을 바로잡고 전망 학습 목표와 당면 학습 계획을 정확히 세우며 계획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학풍을 수립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학습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퇴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습에 시간을 많이 돌리는 것만 가지고 학풍이 섰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학습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실속 있게 하며 학습이 혁명적 실천에 도움을 주도록 될 때에만 학풍이 옳게 수립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의 본질에 깊이 파고 들지 않고 겉만 핥는 형식적인 학습, 실천적 문제와 유리된 학습은 아무리 많이 하여도 소용이 없다.

당은 오늘 간부들과 당원들의 학습에서 리론적으로 더욱 깊이 파고 들며 학습을 실천적 문제의 해결에 더 잘 복종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일'군들이 학습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고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혁명 정세를 옳게 분석하고 리해할 수 없으며 우리 당 정책의 본질을 리론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없다.

학습과 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당 정책의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다.

당 정책 학습을 심화시켜 당 정책의 본질과 정당성을 리론적으로 심오히 파악하며 거기에 구현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보편성과 창조성, 실생활에서의 그의 구현 방도를 똑똑히 인식할 때에만 우리는 습득한 리론을 혁명적 실천에 옳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 기술 지식을 학습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끝으로 일'군들 속에서 철저한 학습 기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학습에 필요한 수단인 학습 자료들을 옳게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 지도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오늘 학습이 자습으로 전환된 조건하에서 학습 자료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매개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필요한 학습 자료들이 차례지도록 하며 그의 질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 조직들은 매개 단위에서 선전 핵심들, 학습 지도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간부들과 당원들의 학습을 옳게 방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풍을 확립하는 것은 오늘 우리 당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긴절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학풍을 수립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높은 자각성과 혁명적 기풍을 발휘하여 학습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매개 당 조직들은 학습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의 정치 리론 수준과 지도 능력을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까지 급속히 끌어 올림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촉진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사회주의 경제 법칙

김 상 학

사회주의 하에서 객관적으로 작용하는 경제 법칙들을 옳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 문제이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당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견지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과거에 락후한 식민지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이미 전후 짧은 기간 내에 튼튼한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오늘은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면서 발전된 공업 국가에로의 전환 도상에 있다.

전쟁 전과 전후의 두 차례에 걸처,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하는 어려운 과업이 수행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3년에 우리 나라 공업 총생산액은 해방 직후인 1946년 수준을 32 배로, 일제 말기인 1944년 수준을 11 배 이상으로 릉가하였다.

급속히 장성하는 공업의 지원 하에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 났다.

농업 협동화가 완성되고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됨으로써 알곡 생산은 해방 전에 비하여 근 2 배로 장성하였으며 식량은 완전히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되였다.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 축성에서 우리가 달성한 성과는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형제 국가들과의 호상 협조와 분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것은 세계 평화와 반제 력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신생 독립 국가들과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의 견인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되였다.

지난 7월에 평양에서 열린 제 2 차 아세아 경제 토론회 참가자들은 우리의 성과와 경험에 커다란 공명을 표시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성과가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며 앞으로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지향하고 있는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에게 고무적 힘으로 된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이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우리 혁명의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자립 경제 건설 로선의 정당성—이것은 이미 생활에 의하여 확증되였으며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로 되였다.

그런데 최근 시기 일부 사람들은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건설하고 있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폐쇄 경제》니, 《경제의 고립화》니 하면서 마치 그것이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듯이 비방하고 있다. 그들은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 협조에서 새로운 단계가 도래하였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체계 전반의 범위에서의 《단일한 경제 기구》의 창설과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통합 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가 자주적인 민족 국가 단위로 건설되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와 여기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들에 대한 그릇된 평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리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한편에 있어서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경제적 련계를 규정하는 합법칙성을 외곡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 경제 법칙의 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하는 정확한 길이며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련계와 국제적 협조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튼튼한 담보이다.

1

사회주의가 국가 단위로 건설되는 현 조건에서 매개 나라들의 경제 발전의 기본 방향과 경제 구조의 특성은 일차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내에서 작용하는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객관적 요구에 의하여 규정된다.

물론 오늘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된 조건 하에서 이 진영 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련계를 부단히 확대 강화하는 것은 매개 나라들의 경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그러나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결정적으로 그 나라 자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경제 법칙에 의거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다.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전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과 확대 재생산의 법칙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 매개 나라들에서 확대 재생산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자주적이며 종합적인 인민 경제 체계의 형성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특징은 인민 경제를 선진 기술로 장비하고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부단히 장성하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있다.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이러한 특징은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 및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의 법칙의 작용과 함께 우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여야 하며 또한 그것이 인민 소비품 생산의 높은 장성과 밀접히 결합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가 반드시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적 중공업 기지를

튼튼히 축성하는 동시에 인민 소비품 생산 기지를 강화하며 농촌 경리를 선진 기술로 장비된 식량 및 원료 기지로 전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또한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은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촌 경리 발전 간, 가공 공업과 채취 공업 발전 간의 정확한 균형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 법칙은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의 법칙과 함께 국내의 자연 부원 및 각종 물자 자원과 사회적 로동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생산을 원료, 연료 원천과 로력 자원 및 제품 소비지에 접근시킬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이와 같은 요구는 총체적으로 보아 사회주의 경제가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리 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각각 자기의 력사적, 경제적 및 자연적 제 조건에 의하여 일정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되여야 하며 지방 경제 단위들에서까지도 각기 그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발전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 법칙의 요구로 되는 인민 경제의 다방면적인 발전은 사회 생산력 발전의 일반적 추향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그것은 사회 생산력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 분업이 심화되며 자연 부원의 리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새로운 생산 부문이 부단히 창설되고 이에 따라 인민 경제의 다방면적 발전은 필연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족 경제가 모두 자립적인 경제 단위로,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매개 나라들이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의 자기의 초소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하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하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세계에서 국토가 매우 크고 인구가 많은, 특수한 몇몇 나라들에서만 공업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생산 전통이 있거나 또는 자연 경제적으로 유리한 일부 제한된 부문들만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리론에 의하면 국토가 크지 않은 나라들에서 공업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큰 규모의 기업은 건설할 수 없으며 높은 수익성과 로동 생산 능률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력사에서 론박된 지 오랜 기업의 《거대광》 또는 《최상 규모 리론》에 기초하는 이와 같은 리론이 오늘에 와서 또다시 되풀이 선전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우리의 경험은 국토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들에서도 공업을 능히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 그것이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담보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 당은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는 행정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관철시킴으로써 강력한 중공업 기지와 함께 현대적 경공업 및 농업 생산 기지를 창설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켰다.

우리는 인민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내의 모든 자연 부원과 로력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켰으며 국내에서 필요한 생산 수단과 인민 소비품을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생산 보장하였다.

만일 대규모 기업소의 유리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강철 공장은 년산 1천 200 만 톤, 자동차 공장은 년산 8만 대 이상인 경우에만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에 따라 경제를 발전시킨다면 많은 나라의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기업소의 규모는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각이할 수 있다. 기업소의 규모는 국내의 모든 자원과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 리용할 수 있는 크기로 규정되여야 한다.

생산의 자연 경제적 조건과 전통도 결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부단히 변화한다.

또한 수익성과 로동 생산 능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물론 개별적 기업소의 범위에서 엄격히 타산되여야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하게는 전체 인민 경제적 견지에서 타산되여야 하며 또한 목전의 리익과 함께 인민 경제 발전의 전망적 견지에서 고찰되여야 한다.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던 시기에 일부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건설한 뜨락또르 및 자동차 공장들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전면적 기계화를 보장하며 인민 경제 전체의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제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체의 기계 제작 공업에 의하여 가까운 장래에 농촌 경리에서 현대적 기계화가 완성될 것이다. 만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이 몇 배나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이제 와서 더욱 명백한 사실로 되였다.

사회주의 하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국내에 튼튼한 원료 기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일찌기 레닌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모든 종류의 가장 중요한 원료 및 산업을 **독자적**으로 자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보장》(전집 제27 권, 403 페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튼튼한 원료 기지를 조성함이 없이는 가공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공업을 안정성 있게 발전시킬 수 없다.

현대 공업의 발전 과정에서 가공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부합되게 원료 생산을 증대시키고 원료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여 왔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기 나라에서의 가공 공업의 발전에 요구되는 원료를 주로 식민지 및 후진 국가들에 대한 략탈에 의하여 해결하였으며 또 해결하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는 그 본성으로부터 이와 같은 방도를 취할 수 없다.

특히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나라의 공업화에 기초하여 중요 가공 공업 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조건 하에서 그 어느 사회주의 국가도 오래 동안 원료 공급 지대 또는 농업 지대로 남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나라의 공업화와 사회주의 경제 건설 행정에서 자연 부원을 호상 교환 리용하며 호상 협조하되 우선 국내에 공고한 원료 기지를 최대한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채취 공업과 금속 및 화학 공업의 급속한 발전, 농촌 경리의 다각적 발전을 요구하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 경제 발전의 방향과 나라의 경제 구조가 사회주의 경제 법칙의 요구에 정확히 적응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확대 재생산의 속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인민 경제 발전의 빠른 속도를 보장하며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는 담보로 된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행정에서 인민 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된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에 대한 명백한 실증으로 된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과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던 전후 년간에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는바 1954~1963년 간에 공업 총생산액은 15 배로 장성하였다. 특히 제 1 차 5 개년 계획 기간은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의 공업 생산 년 평균 증가 속도는 실로 36.6%에 달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는 7 개년 계획 기간에도 경제 발전의 매우 높은 속도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이 인민 경제의 비상히 빠른 발전 속도를 실현하게 한 중요한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이 인민 경제 발전에서 국내의 모든 자원과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사회적 로동을 극력 절약할 수 있게 한 데 있으며, 둘째로 우리 나라 실정과 우리 혁명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경제 건설을 조직하며 특히 경제 발전에서 속도와 균형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게 한 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국가의 경제력을 확고한 토대 우에서 급속히 강화 발전시켰고 장구한 식민지 통치와 가혹한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되였던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단시일 내에 안정시켰으며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러한 제반 사실들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작용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동시에 이 법칙들의 작용을 무시한다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커다란 저해를 가져 오리라는 것을 증시한다.

2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의 성격과 현시기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련계에서의 합법칙적 요구에도 완전히 부합된다.

사회주의는 이미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강대한 세계적 체계로 되였다. 따라서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은 과거에 쏘련이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극히 어려운 조건과는 다른, 유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계급적 동맹체로서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 인민들 간의 련계와 접근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경제, 문화 발전에서 자기의 거대한 우월성을 실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일부 사람들은 통일적인 계획 밑에 경리를 운영하는 하나의 세계적인 협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맑스주의 력사적 유물론과는 아무러한 공통성도 없는 비과학적이며 비현실적인 견해이다. 이것은 오직 환상에 사로잡혀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의 성격에 대한 심히 그릇된 판단에서 나왔거나 또는 앞선 나라가 뒤진 나라들을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좌지우지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인류 사회 발전에서 국가적 한계와 민족적 차이가 없어지는 로정은 점차적인 단계를 거치는 매우 장구하고도 복잡한 과정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위대한 레닌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에로 전체 인류를 고무하면서도 그 어느 때나 이 과정을 그렇게 단순화하지 않았으며 여러 나라 사이의 민족적 차이와 국가적 한계는 《심지어 전 세계적 범위에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실현된 후에 있어서도 매우 오래 동안 존속하게 될 것》(전집 제 31 권, 98 페지)이라고 교시하였다.

그러면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의 성격은 어떠한가?

우리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는 사회주의를 독립된 국가 단위로 건설하며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의 자주성과 평등권을 존중하며 민족 경제의 자립성을 확립하는 단계이며 그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 인민들 간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련계와 접근을 강화하는 단계이라고 인정한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동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나 이 나라들에서의 경제 발전 수준은 동일하지 않다. 또한 매개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 앞에 제기되고 있는 당면한 혁명 과업, 정치적 및 경제적 과업도 동일하지 않으며 매개 나라의 전통과 풍습도 동일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은 앞으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들어 서는 나라들이 더욱더 증대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우기 그러

하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나라가 동일한 방도와 방법으로, 그리고 동일한 속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 모든 사정은 현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진영 내 인민들이 공동의 목적과 사상에 의하여 호상 협조하고 원조하되 사회주의를 독립 국가 단위로 건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사회주의가 독립된 국가 단위로 건설되는 현 조건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생산 수단은 그 소유의 형이 동일하나 그것은 사회주의 진영 내 국제적 범위에서 공동적인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매개 나라에서 생산된 국민 소득도 국제적으로가 아니라 국가적 범위 내에서만 계획적으로 분배된다. 사회주의 국가 근로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에서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의 실현도 원칙적으로 각기 자기 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 자체의 경제력에 의존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내 국가들의 관계에서는 인민 경제 계획화의 정치적 전제로 되는 중앙 집권적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는 달리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이 사회주의 진영 내 국제적 범위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그 요구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물론 오늘 인민 경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련계는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례컨대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형제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유무 상통하며 그 경제적 련계를 일정한 전망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이것은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더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그들 간의 경제적 련계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적 련계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이 국제적 범위에서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련계를 맺는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이 작용하는데 기초하여 인민 경제가 국내에서 확고하게 계획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요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련계의 계획적 성격은 한 나라 안에서 인민 경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그것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진정한 평등과 자주성의 보장,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립각한 호상 협조와 원조의 강화는 이 나라들 간의 호상 관계와 경제적 련계에서 확고한 법칙으로 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계획적인 련계는 이러한 법칙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는 동시에 매개 나라의 자립적인 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객관적 요구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것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에 있어서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인민 경제의 균형을 전체 사회주의 경제 체계에서의 단일한 계획과 총체적 균형에 복종시키려는 일부 사람들의 견해가 전혀 무근거하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국제적 범위에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작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전체 사회주의 경제 체계에서의 단일한 계획의 설정을 주장하는 것은 《통합 경제》를 옹호하기 위한 한개의 고안에 불과하다.

이러한 견해는 결국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과 확대 재생산의 법칙의 작용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당한 견해이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원칙적으로 생산 수단과 소비재 생산 간, 공업과 농업 간, 축적과 소비 간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함이 없이는 인민 경제를 일보도 전진시킬 수 없다.

만일 경제 발전 수준이 각이하고 생산 기술적 조건이 같지 않은 개별적 나라들의 경제를 《통합 경제》의 단일한 계획과 균형에 맞추어 넣는다면 매개 나라들은 자기의 경제 발전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게 기동적이며 능동적인 경제 지도 사업을 보장할 수 없고 각이한 경제 발전 속도, 특히는 자기 실정에 맞는 높은 발전 속도를 실현할 수 없다. 더우기 이렇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뒤떨어졌거나 작은 나라의 생산 구조와 부문 균형은 발전된 나라의 그것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의 성격을 외곡하고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를 그 어떤 초국가적인 계획에 복종시키려는 《통합 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작은 나라들의 리익을 희생시키고 크고 발전된 나라들의 리익을 추구하려는 민족 리기주의적 표현으로 밖에는 달리 리해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성을 거부하는 것이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 어디에 도달할 것인가?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오며 매개 나라의 맑스-레닌주의당들이 지닌 혁명의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를 독자적 립장에서 주동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자립 경제 건설을 거부하는 것은 매개 나라가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서 그가 처한 구체적인 환경에 따라 독자적인 대내외 정책을 실시할 수 없게 한다.

또한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주권의 존중 평등과 협조 호혜의 원칙을 떠난 국교 관계를 초래케 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과 친선 관계를 손상시키며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공고 발전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 발전의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주성과 민족 경제의 자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온갖 시도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강화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에 막대한 지해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국가의 자주권과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며 우선 자기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원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적극 추진시켜야 하며 모든 형제 나라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여

야 한다.

이것은, 매개 나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질적으로 촉진시키며 나아가서는 점차 그들 간의 민족적 차이와 국가적 한계를 없애게 하는 력사적 과업의 실현을 앞당긴다. 력사 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적 과정은 《인류가 피압박 계급 독재의 과도기를 거쳐서만 계급의 폐절에 이를 수 있는 것과 같이》(레닌 전집 제 22 권, 189 페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변증법적 로정으로 된다.

상술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건설에서 자립성을 저해하며 자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통합 경제》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초국가적 계획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이상에서 말한 모든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사회주의 하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국제적 협조, 사회주의 국제 분업과의 호상 관계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를 가질 수 있다.

사회주의 국제 분업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호상 통일 속에서 발전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하에서의 국제 분업은 락후한 나라 및 신생 독립 국가들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대립된다. 자본주의적 국제 분업의 후과로 인하여 지난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현대적 공업이 건설되지 못 하였으며 이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세계의 농업 지대 또는 광업 지대로 머물러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제 분업은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와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매개 나라의 경제가 자립적으로 더 잘 발전하도록 보장한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 하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발전은 형제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조와 국제 분업을 더욱 공고한 토대 우에서 확대하며 그를 다방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초를 조성한다. 바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국제 분업과 국제적 협조를 더 잘 하는 길이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 발로 튼튼히 선 자립 경제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회주의 국제 분업에 더욱 광범히, 더욱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경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명백히 실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강화되고 나라의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련계와 분업도 확대 심화되였다.

례컨대 1954~1963년에 사회주의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외 무역 류통 총액은 약 6 배로 급속히 장성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사회주의 국제 분업과의 통일을 실현하는 기본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는 자체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 기초 우에서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경제적 및 기술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며 이 나라들과의 국제적 분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선집 제 5 권, 173 페지).

사회주의 하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국제 분업과의 통일은 오로지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사회주의 국제 분업을 발전시키는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은 제 인민들 간의 협조와 접근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본질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제 분업의 본질적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다.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사회주의 국제 분업을 발전시키는 원칙은 또한 이미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맺어지는 계획적인 경제적 련계의 성격, 경제적 련계가 매개 나라의 계획적 발전, 자주적 발전에 기초해야 한다는 견지에서도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민족 경제 발전을 《사회주의 국제 분업》에 종속시키려는 견해는 본질 상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에 자본주의적 국제 분업의 관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결국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부인하려는 부르조아적 리론인 것이다.

최근 시기 일부 사람들은 또한 이와 같은 심히 그릇된 《리론》으로부터 출발하여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 경제의 다방면적, 종합적 발전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거부하면서 세계 사회주의 체계 내에서 단일한 경제 기구와 초국가적인 통일 계획에 기초하는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요하는 견해를 류포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 경제가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는 사회주의 하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국제 분업과의 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은 나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련계를 더욱더 확대하며 필요에 따라 형제적 국가들과 생산의 전문화를 조직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 전통》과 자연 조건 또는 일시적이며 국부적인 수익성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등에 빙자하여 매개 나라 경제에서 그 어떠한 부문 구조를 소위 합리적인 것으로 고착시키고 그를 계속 유지케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생산의 전문화는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생산의 전문화는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경제의 자립적 발전 특히 력사적으로 락후하고 일면적인 경제를 물려 받았던 나라들에서 현대적인 강력한 공업 국가에로 전환하는 것을 저애하며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위력 강화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 온다.

국제적 범위에서의 이와 같은 생산의 전문화를 실현하려는 온갖 시도는 경제

발전에 대한 비과학적 견해에 기초한 것이며 현실에서 반드시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제국주의 기반에서 해방되여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도 현실적 과업으로 이미 실천에 옮겨지고 있으며 사회적 진보와 민족적 독립을 지향하는 인민들 속에서 그에 대한 요구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며 반제 민족 해방 혁명을 더욱 성과적으로 완수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 내 형제 국가들, 그리고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과의 호상 협조와 원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다.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의 극복에 대하여

리 주 명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들어 가기 위한 기본 조건의 하나이다.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에는 과거 사회에서 이루어진 대립과 착취 관계로 하여 본질적 차이가 생겼다.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 도시와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전면적 개조는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에 존재하던 대립의 근원을 없애 버렸다.

이것은 두 로동 사이에 존재하던 차이 극복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며 또한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건설은 그 차이 극복을 필연적인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과 더불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의 극복이 현실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다.

이 론문에서는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의 극복 문제를 전면적인 기술, 문화, 사상 혁명; 천리마 작업반 운동; 생산과 결합되는 교육 체계의 확립 등의 문제와 결부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

1

다 아는 바와 같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분리, 대립은 사회 발전의 일정한 단계 즉 계급 사회의 출현과 때를 같이 하였다. 원시 사회에서 사람들의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은 분리, 대립을 몰랐으며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발생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발생되자부터 정신 로동은 소수 특권층(착취 계급)의 독점물로 되고 대다수 피착취 대중에게는 육체 로동만이 운명 지어졌다. 착취 계급은 경제적, 물질적 수단 뿐만 아니라 정신 문화적 수단까지 독점함으로써 피착취 근로 대중으로 하여금 과학 문화의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여 정신적으로 무지와 몽매에 허덕이게 만들었다.

사'적 소유에 의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이와 같은 대립은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극도에 달하였으며 따라서 그 사이의 본질적 차이도 이 때에 와서 가장 심하게 생기였다.

육체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착취할 목적으로 착취자들이 정신 로동을 독점하는 것—이것이 바로 계급 사회를

일관하고 있는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대립의 본질이며 그 사이에 더욱 더 심연을 만드는 근원이다. 따라서 이 대립의 청산 방도, 이 차이의 극복의 전제—그것은 착취 제도의 청산이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청산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와 착취 제도의 청산은 착취 계급에 의한 정신 로동의 독점을 완전히 청산하였으며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대립의 근원을 뿌리 뽑았다. 이것은 또한 이 두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를 없앨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에 기초하여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극복함으로써만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야 할 필요성은 우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 수준을 요구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이 잘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축성은 근로자들의 로동 활동에서 지적 활동을 부단히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즉 현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화, 자동화는 제한된 몇몇 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 여기에는 생산자 대중의 높은 기술 문화 수준이 동반되여야 한다.

생산자 대중 즉 육체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민 경제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는 데 적극 참가하며 자동화된 공장, 기업소를 능히 움직일 수 있는 높은 기술을 가져야 한다.

이로부터 육체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기술 일'군들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며 나아가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필연적 요구로 된다.

다음으로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야 할 필요성은 우리가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보장하자면 반드시 사람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사정과 관련된다.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장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의 제거도 요구하며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요구한다. 즉 사람들이 낡은 사회에서 분업에 예속되여 불구화되고 일면적으로 발전된 상태를 극복하고 모두가 능력과 희망에 따라 임의의 로동 활동에서 높은 생산 능률을 낼 수 있게 되여야 한다. 이 과정은 근로자들이 로동에서 육체적 기능을 발전시킴과 더불어 기술적 정신 로동과 과학 문화적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되며, 기술 문화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자신들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된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러한 발전만이 고도로 자동화된 공산주의 하에서의 기술 로동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차이의 극복은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사업의 한 구성 부분으로 된다.

2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는 기본 열'쇠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키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전면적으로 추진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이다. 이 세 가지 혁명 과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성과적으로 진행한다면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도 없앨 수 있다.

기술 혁명의 수행은 근로자들의 과학 기술 수준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앨 수 있는 물질적 기초를 마련해 준다.

공업 분야에서 선진적 기계 기술이 도입되고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가 실시되면 로동자들은 힘든 육체 로동에서 벗어 나 기대의 조절자로, 감시자로 다시 말하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을 겸비한 사람으로 되게 될 것이며 기술 문화 수준 제고와 휴식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동시에 로동자의 로동 활동에서 지'적 능력의 비중이 증대되고 육체의 일면적 발전이 점차 없어질 것이다.

농업에서도 기계가 손로동을 대신하여 농사를 짓게 되고 화학화가 진척되여 김매기를 대신하게 되면 농민들은 점차 기술, 기계의 운영자로 될 것이다. 이것은 농촌에서도 8 시간 로동제를 실시하고 나아가서는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간의 차이를 점차 없앨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도 고된 일에서 벗어 나 과학과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매 개인이 자기 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의 분리가 제거되고 량자 간에 긴밀한 련계가 보장될 것이다.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의 극복에서 문화 혁명의 수행은 특히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기술 수준의 제고가 바로 문화 혁명의 기본 내용을 이루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높은 기술을 가지게 하자면 그들의 문화 수준을 일정한 정도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 현대적 기계를 능히 다룰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어려운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과학 기술의 최신 성과를 생산에 도입하는 사업은 로동자와 농민의 기술 문화 수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생산력의 발전을 그 만큼 더디게 할 것이다.

근로자들을 무지와 몽매 속에 집어 넣고 극소수 유산 계급의 자제들에게만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교육 제도와는 달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문화 혁명과 교육의 방침은 도시, 농촌의 모든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특히 젊은 세대들을 지, 덕, 체가 겸비된 유능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는 것을 그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과 육체적 능력을 소유한 진실로 인민적인 인테리를 대대적으로 산출하는 담보로 된다.

특히 농촌에서의 문화 혁명은 아주

긴절한 문제이다. 농민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기술 문화 수준을 빨리 높이여 로동자와 농민의 기술 문화 수준의 차이를 점차 없애며 나아가서 전체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기수, 기사의 수준에로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문화 혁명의 성과적 수행은 정신 로동을 하는 사람들과 육체 로동을 하는 사람들의 기술 문화 수준 상의 차이를 없이 하고 량자를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의 하나이다.

사상 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는 것은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상 혁명을 확고히 선행시키지 않고서는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의 성과적 수행도 기대할 수 없다.

동시에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사실 상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인 것 만큼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매 개인의 로동이 높은 생산적인 로동으로 되게 하자면 반드시 공산주의적 의식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공산주의적 의식성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기술 기능과 문화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헌신하게 할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로동자들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면 그들은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 노력할 것이며 생산 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창발성과 열성과 재능을 발휘할 것이다》(선집 제 6 권, 467 페지).

사상 혁명에서 특히 사람들을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로 교양하는 것은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과거에 육체 로동은 천한 것으로 간주되였고 육체 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우리 제도 하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로동에서 과거의 낡은 사상 잔재를 버리고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들과 정신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로동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을 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며, 정신 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면적 발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육체 로동에 정기적으로 참가시켜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을 조화적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육체 로동을 천시하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뽑게 함에 있어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 교양과 결합된 로동 실천은 바로 로동의 진가를 가장 잘 깨닫도록 하여 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해마다 정기적으로 되는 농촌 로력 지원 사업과 토요 로동이 가지는 의의는 자못 크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성과적 수행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 뿐만 아니라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도 기본 방도로 된다.

3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강력히 전개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참가자들은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노력하며 집체적 지혜와 집체적 창발성을 발휘하여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 집단적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가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사상 도덕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함께 배우며 서로 가르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업반 내 모든 성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빨리 높아지고 있으며 그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참다운 공산주의적 태도가 배양되고 있다. 나아가서 천리마 기수들은 재능 있는 관리 일'군으로, 능숙한 조직자로 육성되고 있다.

그리 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간 개조의 공산주의 학교로 되고 있으며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고 생산 혁신을 일으키는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중요한 목표로, 내용으로 되고 있는 기술 혁신 운동은 점차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있다. 종전의 《1 인 1 건 창의 고안 운동》은 작업반을 단위로 하는 《한 달에 한 건 이상의 기술 도입 운동》과 그에 기초하는 《작업반 련합 혁신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 혁신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작업반 성원들의 기술 문화 수준 제고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 운동은 직접 생산을 진행하며 생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로동자들과 그들의 창안과 발기를 리론적으로 안받침할 줄 아는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생산자 대중의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킬 수 있게 하며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또한 생산자 대중을 기업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광범히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풍부히 해 준다.

이리 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로동 활동 과정에서 지'적 활동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장성하고 있다. 3,000 톤 프레스, 8 메터 타닝반을 비롯한 현대적인 대형 기계들과 설비들, 벼 랭상모나 목화 영양 단지 가식법 등은 다 육체 로동에 종사하고 있는 로동자, 농민들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가 하에 제작되고 창안된 것이다.

이와 같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강화 발전은 경제 발전을 강력히 추동할 뿐만 아니라 로동자,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기술 일'군들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릴 수 있게 하며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앨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4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기술 일'군들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교육 사업은 큰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 세대들을 일반 기초 지식과 함께 현대적 기술을 소유한 문명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일'군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취한 중요한 조치의 하나로 되는 것은 인민 교육 체계의 개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956년에 초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고 1958년부터는 동양에서 처음으로 중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에는 전반적인 기술 의무 교육제에로 이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기술 의무 교육제에로의 이행은 후대들을 유능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는 데서 획기적 전변으로 될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래의 로력자의 기본을 이루게 될 세대들로 하여금 높은 기술 기능과 문화 수준을 소유케 하며 정신 로동과 함께 생산적인 육체 로동에도 동시에 준비된 일'군들로 성과 있게 키워 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 교육 체계와 더불어 생산에서 리탈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각종 형태의 고등 교육 체계를 병행적으로 발전시키는 우리 당의 방침은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술 간부에 대한 장성하는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 교육 기관을 확장하는 한편 로동자, 농민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이사업은 물론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 기관을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당은 기술 간부에 대한 인민 경제의 수요를 보장하며 근로자들이 생산에서 리탈됨이 없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 및 통신 교육망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대학들인 공장 대학과 공산 대학을 창설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그리 하여 오늘에 있어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 교육 기관에 망라된 학생 수는 14만 명 이상에 달하며 공장 대학만 하여도 수십 개나 된다.

이러한 대학 제도의 창설은 우리 나라의 공장, 기업소, 농목장들이 생산 기지인 동시에 간부 양성의 기지로 되게 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공장 대학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크다. 김 일성 동지는 공장 대학이 가지는 우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대학들은 로동계급 속에서 새로운 인테리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하며 교육과 생산, 리론과 실천을 가장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많은 핵심 로동자들이 생산에서 리탈되지 않고 고등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생산과 기술의 발전은 더욱 촉진되고 있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지표는 육체 로동을 하는 사람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기사, 기수의 수준에까지 이끌어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과거에 배우지 못한 로동자, 농민들에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데 중요한 해결책이 있다. 공장 대학은 바로 육체 로동에 종사하는 로동자 모두에게 자기 일터에서 리탈함이 없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교육 형태이다.

그리고 원래 공산주의 교육 형태는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맑스는 로동과 교육의 결합을 미래 공산주의 교육의 형태로 간주하였다. 이 점에서 볼 때 공장 대학 제도의 창설 및 그의 강화 발전은 교육 발전의 필연적 추세로 된다.

공장 대학에서는 생산 현장이 곧 배움터이다. 학생들은 로동자이며 직접적 생산자들이다. 대학-공장은 리론 습득의 장소이며 동시에 습득된 리론의 검증 장소이다. 근로자들은 리론의 정당성을 직접 검증해 보면서 그것을 공고화하며 창의 고안 사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발전시킬 수 있다.

이리 하여 여기서는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이 밀접히 결부되여 로동자-대학생들의 기술 문화 수준의 전면적 발전을 매우 빠르게 보장한다.

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생산에서 리탈되지 않고 고등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생산과 기술 발전을 크게 촉진시킬 수 있다. 로동자-대학생들이 배운 리론은 곧 물질적 힘으로 전환되여 생산력의 부단한 장성을 가져 올 수 있다.

동시에 생산 현장에서 기술자-교원들과 로동자-대학생들의 긴밀한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창조적 련계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며 생산의 앙양을 가져 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컨대 공장 대학 제도는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건을 잘 준비케 해 준다.

이와 같이 생산과 유리시킴이 없이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소유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사업은 벌써 본질 상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차이를 없애고 량자를 결합시키는 구체적 형식으로 된다.

고등 교육을 강화 발전시킴과 함께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인 교육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은 체계적인 교육망을 통하여 실현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서 사정은 그렇지 못 하다. 따라서 그들의 기술 문화 수준 제고를 위한 성인 교육 사업은 절실한 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이 사업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해방 직후 우리 당은 전체 근로자들을 무지와 몽매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문맹 퇴치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불과 2~3 년 내에 문맹을 완전히 퇴치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당은 로동자, 농민들을 성인 교육 체계에 광범히 망라시켜 인민 학교 또는 초급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 수준을 갖도록 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우리 당 제 4 차

대회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하여 전체 로동자, 농민들이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질 데 대한 과업을 내세웠다.

그리 하여 오늘 전국 각지에 설치된 근로자 학교와 근로자 중학교들에서는 일반 교육이 강화되고 있으며 공장과 농장들에서는 기술 전습 체계와 기술 학습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여 근로자들이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며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당은 모든 사람을 다 유식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을 전 당'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추진시키고 있으며 학습하지 않는 현상과의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자신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강력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덕성군 니망지 협동 농장에서는 농장원 전체가 이미 근로자 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을 가지게 되였다. 또한 이 농장에서는 자체로 45 명의 기사, 기수를 길러 냈으며 79 명이 대학 및 고등 기술 학교 통신반에 망라되고 73 명이 자습하여 기사, 기수 검정 시험의 일부 과목에 합격하였다. 이리 하여 농장에서는 5 년 후이면 4 호 당 1 명의 기술자를 가지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신원군 월당 협동 농장에서는 현재 7 명의 기수와 118 명의 기사, 기수 검정 시험 일부 과목 합격자와 22 명의 통신 대학생을 가지고 있으며 1967년에는 자체로 학사 1 명, 기사 21 명, 기수 245 명을 양성할 것을 계획하고 그의 실현에 달라붙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전체 근로자들이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장차 모두가 다 기사, 기수의 수준에 도달하는 데서 획기적 전환으로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점차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가 극복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되고 인민 경제는 새 기술의 토대 우에서 더욱 급속히 발전하게 될 것이다.

✻ ✻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를 극복하는 사업은 장구한 기간을 요하는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며 또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혁명을 계속할 데 대한 당의 사상을 받들고 낡은 사회의 유물인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완강히 그리고 책임적으로 투쟁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극복되고야 말 것이며 그 만큼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은 더욱더 앞당겨질 것이다.

인간 개조에서의 도덕 교양

박 형 봉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정신적 풍모에서는 심각한 변화들이 일어 나고 있다.

우리 근로자들 속에서는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사는 기풍이 더욱 더 생활화되고 있으며 동지를 위하여,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이러한 공산주의적 사상-도덕 풍모를 적극 조장 계발하며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 전반에서 특히는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는 단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혁명 과업이다.

이에 있어서 도덕 교양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한다는 것은 그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부르죠아 사상과 도덕의 잔재를 뿌리 뽑고 로동 계급의 혁명적인 정신-도덕적 풍모를 가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들 속에서 새로운 정신적 풍모의 형성은 물론 계급적인 사상 의식 교양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도덕 륜리적인 교양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정신적 풍모 전반의 개변과 발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사람들 속에서의 공산주의적인 정신적 풍모의 개변은 객관적인 물질 생활의 제 조건의 변화와 목적 의식적인 교양의 통일 속에서 진행된다.

맑스-레닌주의는 인간의 정신적 풍모는 우선 생산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인정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집단주의적 의식, 도덕의 전면적 지배를 조건 지으며 또한 그것을 요구한다.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우리 나라의 현실은 사람들 속에서 집단주의적인 생활 규범을 요구하며 산생시키는 바탕으로 되고 있다.

우리는 이 요구에 적응하게 목적 의식적이며 적극적으로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진행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진정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할 수 있다.

✻ ✻

공산주의 도덕은 인류 력사 상 가장 아름다운 인간 관계의 구현이며 생활 규범이다.

공산주의 도덕은 사람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 개조함에 있어서 우선 그들의 감정, 량심, 품성에 고귀한 사회적 내용을 부여하여 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사회와 집단 속에서 살면서 필연적으로 일정한 도덕적 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적응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체득할 뿐만 아

니라 우리의 생활이 요구하는 도덕적 품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의 필연적 과정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바로 자기에 고유한 도덕 품성을 가진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적인 집단주의, 동지애,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등은 우리 사회의 인간들이 가져야 할 도덕적 품성으로 된다.

이러한 도덕적 품성이 생활화되고 인습화될 때 사람들은 새 사회의 성원으로서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게 된다.

또한 근로자들은 공산주의 도덕으로 자신을 수양할 때 우리 사회의 생활과 인간 행위에서 진정으로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에 대한 정확한 립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새 인간 풍모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 개조 과정은 바로 낡은 사상과-도덕 인습을 청산하며 동시에 새로운 사상 도덕적 풍모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사람들이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생활에서 이미 낡아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배격하고 증오하며 도덕적으로 고상한 것을 적극 지지 체득할 수 있다.

현시기 인간 개조 문제에서 낡은 인습, 습관을 뿌리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정치-도덕적으로 특히 정치-사상적 면에서 튼튼히 통일되여 있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한결같이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 통일을 더 굳건히 하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성과 있게 개조하자면 그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도덕 인습을 뿌리 뽑고 그들을 새로운 공산주의 도덕으로 교양하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제기된다.

우리 근로자들의 도덕적 풍모에는 공산주의적인 것이 지배하고 있으나 아직도 낡은 부르죠아 도덕의 잔재가 생활의 이모저모에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우리 근로자들 속에 아직도 이러한 낡은 생활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상 의식이 물질 생활의 변화보다도 뒤떨어진다는 데 있다. 또 의식 령역 자체에서 보더라도 도덕적 의식, 인습의 개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리 하여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적지 않은 근로자들의 도덕적인 품성이 이에 따르지 못 하고 있다. 아직 근로자들에게는 자본주의 도덕의 잔재와 소소유자적 인습, 관습의 잔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낡은 인습, 관습 등은 우리의 보다 성과적인 전진에서 장애로 되고 있다.

우리 생활에서 낡은 인습, 관습들을 그 대로 방임한다면 부르죠아적 생활 습관이 되살아 날 수 있다.

공산주의 도덕과 부르죠아 도덕은 적대적인 것이다. 공산주의 도덕의 형성 발전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것은 거기에 바로 부르죠아 도덕이 머리를 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도덕 교양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형편 없는 리기주의자들이 나올 수 있다》.

낡은 인습, 관습의 극복은 공산주의

도덕 기풍이 확립되는 것과 통일되여 있다. 근로자들 속에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이 확립될수록 그것은 낡고 부패한 것을 배척하며 뿌리 뽑는 위력한 힘으로 된다. 이것은 동시에 전 사회를 고상한 도덕 기풍으로 꽃 피게 하는 담보로 된다.

공산주의 도덕 교양은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생활 관습을 뿌리 뽑는 것과 함께 사회의 발전에 적응하게 그들의 정신적 풍모를 더욱 고상하게 형성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는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 사업에서, 경제 관리에서, 생산력 발전에서 계속 새로운 변혁들이 이룩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제반 변혁들은 모두가 근로자들의 높은 공산주의적 정신 풍모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더 고상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례컨대, 생산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문제를 놓고 보자. 종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생산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문제는 주로 생산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기대를 잘 관리하는 문제와 결부되여 있었다. 그러나 대안의 사업 체계가 확립된 오늘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이 생산의 계획 작성으로부터 제품 검사, 재정 관리에 이르기까지 즉 공장 관리 운영 전반에 주인답게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근로자들이 새로운 요구를 높은 도덕적 자각으로서 실현하지 못 하고 종래와 같이 자기 맡은 제품 생산에나 그친다면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는 자기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생산력 발전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말하자면 오늘 대안의 사업 체계 하에서는 근로자들이 기대의 주인으로 될 뿐만 아니라 공장 전반의 주인으로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례로서 로동에 대한 태도 문제를 놓고 보자. 로동에 대한 태도에서 종전에는 주로 로동 규률 문제 즉 로동에 태공하며 불성실한 경향들을 극복하고 열성적으로 일하도록 고무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도덕적 문제였다. 물론 현재도 이러한 것이 로동에 대한 태도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나 오늘날 로동에 대한 태도의 교양 문제는 이에 국한될 수 없다. 오늘에 와서는 근로자들이 로동에서 더 자각적이고 창조적인 열성을 발휘케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로동을 더 헐하고 능률적으로 하겠는가 하는 데 관심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사회-도덕적 문제로서 제기된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기성화되였던 도덕적 품성은 불만족한 것으로 되여 버린다. 말하자면 어제는 비록 선진적이였던 것도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여 오늘에는 벌써 선진적인 것으로 되지 못 하고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도덕적 풍모는 매우 고상하나 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그것을 한층 더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제의 선구자였던 사람이 오늘에는 더 교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시대의 발전과 함께 부단히 자기의 품성을 수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가 미래에로 전진할수록 이러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응하게 근로자들의 도덕적 품성을 높이려면 공산

주의 도덕의 전면적인, 보다 심오한 교양이 필요하다.

❊ ❊

도덕 교양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그 내용과 방도를 옳게 설정하는 것이다.

도덕 교양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교양을 계급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이다.

현시대의 모든 도덕은 계급적인 것이다. 공산주의적 도덕은 철저하게 로동 계급의 사상을 반영한 행동 원칙, 생활 규범이다. 도덕 교양의 목적은 바로 근로자들을 철저한 계급적 투사로, 혁명가로 육성하는 데 있다.

도덕 교양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근로자들에게 공산주의 도덕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계급적 성격을 정확히 리해시켜야 한다. 도덕의 계급적 본질을 정확히 리해할 때만이 공산주의 도덕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할 수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공산주의자다운 고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례컨대, 인도주의 문제를 놓고 보자. 인도주의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중, 우의, 사랑, 배려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간 일반에 대한 막연한 그 어떤 《사랑》과 《배려》가 아니다. 인도주의는 초계급적일 수 없다. 우리의 인도주의는 로동 계급과 전체 피착취 근로 대중에 대해서는 열렬히 사랑하며 그들의 혁명적 리익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바칠 각오를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들을 착취 압박하는 계급적 원쑤에 대해서는 철저히 증오하며 싸우려는 립장으로 충만되는 것이다.

계급적 원칙이 없는 《전 인류적 인도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도덕의 모든 규범들은 모두 이렇게 계급적인 것이며 혁명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 교양은 계급 교양에 기초하여야 한다. 계급 교양에 기초하지 않는 도덕 교양은 무원칙하게 사람 일반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종교적 설교와도 같은 것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도덕의 계급적 성격을 부인하고 소위 《전 인류적 도덕》을 운운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되고 따라서 상부 구조들인 당, 국가의 성격이 《전 인민적》인 것으로 변했다고 하면서 사회적 의식의 제 형태도 《전 인류적인 것》으로 되여야 하며 또 되고 있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그리 하여 도덕도 역시 계급적인 도덕으로부터 《전 인류적인 도덕》으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초인간적, 초계급적 개념에서 취해진 이러한 온갖 륜리는 우리는 부정하는 바이다》(전집 제 31 권, 348 페지).

만일 근로자들에게 초계급적인 《도덕》을 설교한다면 그들은 소위 《인류애》, 《인류 평등》의 《고상한》 《인도주의》에 사로잡혀 계급적 원쑤와 벗을 갈라 보지 못 하게 될 수 있으며 지어는 원쑤와 벗을 바꾸어 놓고 원쑤를 도와 나서고 벗을 희생시키는 위험한 행동에로 떨어질 수 있다.

사실 상 이것은 오늘 수정주의자들이 빚어 내고 있는 현실적 사태이다. 오늘 그들이 진정한 혁명가들의 투쟁과 계급적 원쑤들의 책동을 구분하지 못 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책동을 《리성적》이요, 《친선적》이요 하면서 떠받드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공산주의적 도덕 규범은 그것이 모두가 철저하게 계급성을 띠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에서의 무기로 된다.

근로자들을 철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도덕으로 무장시키려면 도덕 교양이 계급 교양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도덕 교양이 계급 교양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된 결과 근로자들의 도덕적 풍모가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품성으로 일관되고 있다. 도덕 교양은 바로 이러한 품성을 부단히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로동 계급의 혁명적 리익을 위하여 호상 동지적으로, 의리적으로 결합되면서 성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게 한다.

도덕 교양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사회-도덕적 문제들을 옳게 반영하여 교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도덕 품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과업이 나서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 도덕이 요구하는 제반 문제의 포괄적인 교양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산주의 도덕 교양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된다고 하여 근로자들에게 도덕 규범 전반을 평균적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되여서는 안 된다. 혁명 실천 자체가 문제를 그렇게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도덕의 이 규범이, 또 다른 때에는 저 규범이 전면에 제기되여 날카롭게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로 된다. 따라서 사회-도덕적 교양 문제의 전반을 장악하면서도 현실이 제기하는 선차적이고 중심적 문제들을 틀어 쥐여야 하며 이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도덕 교양이 이렇게 될 때 그것은 혁명 실천과 행동의 지침으로 효과 있게 복무할 수 있다. 현실에 복무하지 않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도덕 교양은 마치 중이 《도》를 닦는 것과 같은 것이다.

최근 도덕 교양에서 중심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집단주의 정신을 교양하며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배양하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적 품성을 배양하는 것 등이다.

도덕 교양이 현실에 옳게 복무하려면 사회-도덕적 문제들을 옳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에 돌려져야 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례컨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문제를 설정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상을 주입하는 것으로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만일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제기된 애국주의 교양 문제라면 그것은 응당 원쑤들로부터 조국을 사수하며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격멸할 데 대한 사상으로 교양하는 문제가 위주로 되였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현시기에 있어서의 애국주의 교양은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향토 건설, 살림을 꾸리는 것, 국가 재산의 애호, 로동에 성실하는 것 등에 특히 주의가 돌려져야 하는 것이다.

도덕 교양이 현실이 제기하는 이러한 사회-도덕적 문제들을 정확히 반영하며 해결함으로써만 혁명 실천에서 생활력을 가질 수 있다.

도덕 교양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덕 교양의 수단들을 옳게 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덕 교양의 중요한 수단들인 신문, 잡지, 교과서, 예술 작품들을 도덕 교양에서 제기되는 중심적인 문제 해결에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물론 이것은 이 수단들의 비중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선전 수단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의 현 단계가 요구하는 인간 풍모를 형성하는 데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말하자면 제반 선전 수단들이 우리 근로자들을 전면적인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주인공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도덕적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돌려야 할 것이다. 제반 선전 수단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옳게 반영할 때 근로자들의 새로운 풍모 형성은 참으로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전 인류적 도덕》을 운운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부르죠아 영화, 연극, 소설들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 이러한 저속한 속물적인 것들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며 부패하게 만든다.

그리 하여 부르죠아 생활 양식에 취해버린 자들은 기생적 생활을 즐기며 로동을 천시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지어 계급적 원쑤와 사랑을 맺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경험은 도덕 교양을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들의 인식 교양적 의의를 높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근로자들의 도덕 교양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생산 실천 투쟁에서 사상-도덕적 풍모를 개조하는 학교이다. 도덕적 품성은 도덕적 의식과 행동의 통일로써 형성된다. 도덕 품성은 생활에서 상시적으로 표현되니 만큼 실천 생활과 결합될 때 그의 교양은 효과 있게 될 수 있다. 생활을 떠난, 생활과 분리된 설교로써는 인간의 정신적 풍모를 옳게 형성할 수 없다. 실천 행정에서 아름다운 도덕적 풍모는 그 빛을 한결 나타내며 그것은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 쥐고 그들을 개조하는 무기로 된다.

우리에게서 사람들의 도덕 품성이 그렇게도 빠르게 개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같은 대중 자신이 발기한 운동을 통하여 도덕 교양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 경제, 문화적 과업 뿐만 아니라 사상적 과업, 인간 개조의 과업도 대중 자신의 의식적인 참가와 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참으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대중들 자신이 자신들의 사상 개조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실현하는 위대한 학교이다.

도덕 교양은 인간 개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우리는 도덕 교양 문제를 완강하게 계통적으로 끌고 나감으로써만 또한 그것을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같은 대중 자신의 사회적 운동으로 더욱더 전환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도덕 교양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옳게 진행할 때 인간 개조 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현시기 자본주의 하에서의 로동 계급의 빈궁화

현 호 범

오늘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의 빈궁화 문제는 현대 정치의 근본 문제의 하나로, 광범한 사회 여론의 중심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의 견인력이 날로 증대되면서 그것은 더욱더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리 하여 각종 부르죠아 대변자들은 사회주의의 견인력을 막으며 첨예하여지고 있는 빈궁화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 로동 계급의 상태가 개선되는 듯한 외관을 조성하려고 자본주의의 모든 선전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

우익 사회주의자들도 이들의 장단에 발맞추어 나서고 있으며 《맑스주의자》로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도 자본주의가 로동 계급의 상태 개선에 그 무엇이라도 가져다 주고 있거나 또 줄 수 있는듯이 떠들고 있다.

그러나 맑스가 이미 명백히 지적하였고 또 현실이 잘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하에서 빈궁화란 결코 근절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동 계급이 어떻게 더욱더 빈궁화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 *

제 2 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일시적인 상대적 안정기가 도래하여 일부 생산 장성이 있었다. 그러나 로동 계급은 더욱더 빈궁화되였고 그들의 처지는 가일층 비참하여졌다.

그러면 전후 일정한 《번영》도 계속되고 생산도 어느 정도 장성하였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빈궁화 문제는 완화되기는 고사하고 더욱더 절박하고 날카롭게 제기되는가. 그것은 전후 시기 로동 계급의 빈궁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으며 또 그 작용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사실 상 전후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독점의 전횡은 급격히 강화되였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형성되고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독점들의 세력권은 현저히 축소되였다. 독점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자체의 경제적 및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히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게 되였다.

독점의 전횡을 반영하여 생산의 집적과 집중도 급속히 장성되였다. 미국에서 10억 딸라 이상의 재산을 가진 대회사가 1914년에 7 개에 불과하였다면 그것이 1941년에는 43 개로, 1952년에

는 66 개로, 1956년에는 81 개로 증가하였으며 이 81 개 회사들의 재산 총액은 2천 410억 딸라에 달하였다.

독점들은 바로 이와 같은 거액의 자본 집적에 기초하여 로동 계급에 대한 착취를 미증유의 규모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독점은 로동 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는 현대 기술 진보의 성과를 악용하고 있다.

《기술과 과학의 진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땀을 짜 내는 기량의 진보를 의미》(레닌 전집 제 18 권, 758 폐지)하며 따라서 그것은 로동 계급의 착취를 급격히 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된다.

작업장들에는 지난날의 직공장, 작업반장, 감독의 채찍 대신에 기계에 의한 엄격한 《과학적》 채찍이 나타났다. 독점들은 기계 체계를 고속도로 운전하여 산 로동의 랑비를 《방지》하며 로동자들의 땀을 짜 내는 《과학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로동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긴장도를 높이기 위한 책동을 비상히 강화하고 있다. 지난날의 테일러 제도나 포드주의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은 벌써 로동자들의 조작을 측정하기 위하여 초를 백 단위 또는 그보다 세분하여 측정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다. 자동적 기계 체계는 로동자의 매개 동작을 경기장에 나선 단거리 질주자의 민속성을 련상시키게 하는 고도의 긴장 속에서 진행되게 한다.

극도로 세분화된 로동자의 조작은 벌써 독립적인 작업이 아니게 되였다. 고도로 단순화되고 기형화된 그의 조작은 완전히 규격화되여 자본을 위하여 물샐틈 없이 조직화되게 되였다. 오늘날 독점들은 로동자들의 땀을 짜 내는 분야에서 《과학적》 정밀성의 최고의 높이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리 하여 필요 로동 시간을 급격히 단축시키고 잉여 로동 시간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독점들의 리윤이 놀라운 규모로 장성된 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오늘날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는 생산의 장성에 비하여 독점에 의한 생산의 집적과 집중의 장성이 더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의 집적과 집중의 장성에 비하여 독점체의 리윤 증가가 더한층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1943년부터 1955년까지의 기간에 미국 공업에서 생산량은 9% 장성하였는데 독점들의 리윤액은 39%나 증가하였다. 1957년에 미국 공업에서 500 개의 최대 회사들은 제품 총판매액에서는 55.3%를 차지하였는데 리윤 총액중에서 차지한 몫은 71.4%에 달하였다.

미국에서의 독점들의 리윤은 경제 공황 기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독점들의 리윤은 1929년의 96억 2천 800만 딸라로부터 1943년에는 245억 5천 400만 딸라로, 1950년에는 406억 딸라로, 1956년에는 446억 8천 300만 딸라로, 1962년에는 468억 딸라로, 1963년에는 실로 510억 딸라에까지 달하였다. 제국주의 하에서의 기술의 발전은 독점들에게 이렇듯 거액의 리윤을 가져다 주는 대신에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과 빈궁을 가져다 준다.

다른 한편 기술의 발전은 취업 로동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축소시키며 아동 및 녀성 로동을 증대시키는 대신 성년 로동을 대량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회에 방대한 실업 인구를 낳게 하고 있다. 급격히 증대되여 가는 이러한 실업 인구는 로동 계급의 절대적 빈궁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오늘의 로동 계급은 비단 자본주의적 공장에서 심한 로동고에 의하여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로동의 고통》에 신음할 가능성조차 가지지 못 하며 굶주려야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실업자의 대렬은 급속히 장성하여 미국에서 그것은 1952년에 167만 명이였다면 1962년에는 400만 명으로, 1964년 6월에는 469만 2,000 명으로 격증되였다.

부르죠아 변호론자들은 이 실업자들이 소위 《실업 보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듯이 주창함으로써 이들의 한심한 상태를 미화 분식하려고 시도한다. 그들은 현대의 구휼(救恤) 제도에 대하여 비상한 《정치적》 의의를 부여하면서 그의 본질을 외곡하고 있다.

현시기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업 보험》 제도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로동 계급의 행복한 생활에 무한히 고무되고 있는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의 투쟁을 무마하기 위하여 부르죠아적 구휼 제도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구휼 제도의 산생은 상대적 과잉 인구의 산생에 예정되여 있으며, 전자의 필연성은 후자의 필연성에 예정되여 있으며, 구휼 제도는 상대적 과잉 인구와 더불어 부의 자본주의적 생산과 발전의 존재 조건이다. 구휼 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비생산적 비용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의 대부분을 자본은 자기 자신의 어깨로부터 로동 계급과 소부르죠아지의 어깨로 전가할 줄을 알고 있다.》(카. 맑스 《자본론》, 제 1 권 2 분책, 370 폐지) 독점들은 구휼 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근로자들을 《부양》하면서 생색을 내는 극도의 간교성을 부리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의 《실업 보험》 제도는 자본주의적 구휼 제도의 전화된 형태에 불과한 것 만큼 그것은 물론 모든 실업자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의 적지 않은 부분은 관청의 아무런 《보호》도 없이 도시를 방황하거나 농촌에 잠복해 있으며 그 중 어떤 부분은 사기, 매음, 절도 등 사회에서 버림 받은 인간의 부류에서 헤맨다.

로동 계급의 생활 수준은 자본주의 나라 취업 로동자들의 상태 뿐만 아니라 바로 이들, 거대한 규모에 달하는 실업자, 반실업자들의 상태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타국을 략탈 억압하고 있는 소수 제국주의 국가, 식민주의 국가의 로동 계급의 상태 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의 빈궁과 무권리에 신음하고 있는 식민지 인민들의 생활 형편까지 타산되여야 한다. 식민지 로동자들의 임금은 그 곳의 백인 로동자들의 임금보다 비할 바 없이 낮다. 북로데시아에서의 로동자, 사무원들의 평균 임금은 구라파인 로동자들의 평균 임금의 30 분의 1에 불과하다.

현시기 로동 계급의 빈궁화를 가일층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경제의 군사화 및 군비 경쟁에 따르는 압박이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기구를 강화하여 독점들은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 경쟁의 주되는 부담을 로동 계급에게 들씌우고 있다. 물가 등귀와 조세 부담의 증대도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현저히 저하시키게 한다.

1963~1964 회계 년도 미국에서는 직접적 군사비만 하여도 553억 딸라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미국 주민 1인 당 296 딸라에 해당한다. 여기에 간접적 군사비까지 고려한다면 그것은 이 해 예산 총액 984억 딸라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 모든 중하가 미국 근로자들에게 들씌워지고 있으며 그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리하여 현시기 로동 계급의 빈궁화 문제는 《부유》한 나라였거나 빈곤한 나라였거나에는 관계 없이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부르죠아 사회학자 고르크는 《미국에서의 부와 권력》에서 미국인이 점차 《중산 계급화》되여 간다는 주장의 허위성을 폭로하면서 빈곤의 계선을 년간 소득 3,000 딸라로 설정하고 전체 세대 수의 3 분의 1이 이 선 이하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여기에 실업, 질병 등의 경우를 고려에 넣으면 미국 전체 세대의 약 절반은 《생존 상 생활 수준을 확보할 수 없는 소득 수준》에 있으며 3 분의 1은 《비상 생활 수준의 확보에도 부족되는 소득 밖에 얻지 못 한다》고 썼다.

고르크가 빈곤의 선을 세대 당 년간 소득 3,000 딸라로 규정한 것은 조금도 과장된 수'자가 아니다. 미국 로동 통계국이 조사한 세대 당 빈곤 생활 계선은 4,000 딸라였고 로동성이 규정한 선은 4,500 딸라였던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 주민의 상당한 층에 심각한 빈곤이 스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세기의 《문명국》을 자랑하는 미국에 800만 명의 문맹자가 있다는 것도 비밀이 아니다.

* *

현시기 로동 계급의 빈궁화의 특징은 그것이 우선 로동력이 정상적 상태로 재생되는 데 필요한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비하여 그 비용이 부단히 감퇴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절대적 빈궁화의 범주는 단순히 자본주의 하에서 실질 임금의 저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자동화 체계에 기초한 《과학적》 고한 제도가 강화됨으로써 로동자들의 임금은 최대의 성공을 거두는 파업 투쟁이 있을 때조차 로동력의 필요 지출이 올라 가는 데 비하면 훨씬 지지하게 증가된다. 이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은 로동력의 피로를 계속 회복하지 못하여 빨리 로쇠해 가며 못 살게 됨으로써 절대적으로 빈궁해 가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보장된 생활이 없는 래일에 대한 불안으로 하여 로동 계급의 세대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 하는 데로부터 더욱 심해진다.

현대의 기술 진보는 취업 로동자들의 수를 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축소시키며 실업률을 부단히 증대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불안을 급격히 증대시키게 한다. 늘어나는 부채의 중압도 또한 근로자들의 형편을 심히 악화시키게 한다. 미국에서 소비자들의 월부 잔고는 1929년의 64억 딸라로부터 1962년에는 529억 딸라로 격증되였다. 이것은 주민 1 인 당 평균 283 딸라의 소비 채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외상 구매와 월부는 로동자들의 상태를 더한층 악화시키게 한다. 로동자들은 이 경우에 리자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로동자들은 이런 조건에서 가정의 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푼전을 벌려고 애쓰면서 자기의 가족들까지 내몰아 어떠한 일이라도 하려고 하며 또 어떠한 착취의 조건도 감수한다. 그리하여 로동자들은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여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 하고 계속 낮은 임금의 로동에 강요되게 되고 또 실업의 위협을 겪게 되며 결국에 있어서는 오랜 투쟁의 전취물까지 잃게 된다. 이로부터 그들의 빈궁은 더욱 혹심해지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의 빈궁화는 최대 독점들이 도발하는 전쟁에 의해서 특히 촉진되게 된다.

물론 맑스와 엥겔스는 자기들이 생존하던 당시의 제 조건에 적응하게 자본주의적 생산과 류통을 분석하고 이에 토대하여 로동 계급의 절대적 빈궁화를 해명하였다. 그러나 산업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이행하고 특히 자본주의가 전반적 위기에 들어 섬에 따라 빈궁화를 규정하는 사회 경제적 조건들은 더 한층 증가되게 되였다.

자본주의 발전의 이 단계에 이르러 로동 계급의 빈궁화는 비단 자본주의적 생산과 류통 행정에서의 로동력의 과도한 지출이나 임금의 로동력 가치 이하의 지불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경제의 군사화로 인한 근로자들의 부담의 급격한 증대, 최대 독점들이 도발하는 침략적인 전쟁과 그 과정에서의 로동 계급의 생활과 로동력의 대량적인 직접적 파괴, 사멸에 의하여 촉진되게 되였다.

전쟁은 제국주의의 항시적인 동반자이다. 독점들은 최고 리윤을 위하여 세계 도처에서 략탈 전쟁을 일으킨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벌써 하나의 유리한 투자로 되고 있다. 독점들은 최고 리윤을 위하여 로동자들을 자본주의적 공장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조국 옹호》의 위선적 구호 하에 류혈적 전쟁 마당으로 내몬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 1 차 대전에서만 하여도 《1천만 명의 전사자와 2천만 명의 불구자》들은 독점에게 《수천억 딸라》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희생되였던 것이다. 2 차 대전은 1 차 대전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고통을 근로자들에게 주었으며 그 후 계속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책동에 의하여 근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겪었다. 독점의 리윤 증대를 위하여 로동자들이 공장에서 배곯으며 헐벗는 것만이 빈궁화이고(독점의 치부의 견지에서 볼 때) 공장의 특수화된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 마당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 가는 것이 빈궁화로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누구도 속일 수 없다. 여기에 바로 현대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빈궁화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신말사스주의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는 현대의 식인종들은 자기들의 최고 리윤을 위하여 류혈적인 략탈 전쟁을 부단히 반복하여 수 많은 근로자들의 세대들을 죽음에로 내몬다. 그들은 이로써 최대한의 전쟁 리윤을 취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방대한 실업 문제를 《정리》한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살아 남은 취업 로동자들 그것도 극히 일부 층에 나일론과 랭장고를 안겨 놓고 《번영》을 《구가》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

* *

바로 현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사실 상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의 빈궁화를 부인하고 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당신들의 나라는 잘 산다》고 하면서 공공연한 형태로, 다른 사람들은 로동 계급의 형편에 대한 서술에서 빈궁화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은연한 형태로, 또 어떤 사람은 당들이 자기 사업에서 《절대적 빈궁화》를 《타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은 보다 간접적인 형태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어느 형태를 취하든 간에는 관계없이 그들은 모두 현대 독점 부르죠아지의 계급 지배의 보좌관으로, 부르죠아의 변호론자로 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맑스주의자》로 자처하는 이들은 미국 부르죠아 사회학자인 허린톤의 평가 수준에도 이르지 못 하고 있다. 허린톤은 일부 사람들이 경탄해 마지 않는 《부유한 미국》과 함께 수천만 근로자들이 기아와 빈궁에서 허덕이는 《또 하나의 미국》이 있다는 것을 밝혔던 것이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근로 대중과 멀리 떨어지면서 독점 부르죠아지 측에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이 로동 계급의 절대적 빈궁화를 부인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의거하고 있는 론거의 하나는 로동 계급이 독점 부르죠아지에게서 더욱더 많은 《양보》를 얻어 낸다는 《리론》이다.

부르죠아지의 《양보》설을 가지고 로자 《협조》를 설교하는 것은 물론 오늘 이들이 처음으로 창안해 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제 2 국제당 수정주의자들에게서부터 발단되였다. 그들은 부르죠아지의 부분적 《양보》에 현훈증을 느끼고 이것을 미끼로 하여 《계급 협조》를 열심히 고아 댔던 것이다. 베른슈타인은 《맑스주의와 개조》라는 소책자에서 부르죠아지의 경제적 및 정치적 《양보》로 하여 로동 계급의 빈궁이 혹심하여짐이 없이 사회주의에로의 《진화》가 실현될 수 있는듯이 설교하였다.

그 때로부터 경과한 반세기 이상의 력사는 이러한 《양보》와 《진화》의 본질에 대하여 웅변적으로 말하여 주었다. 제 2 국제당이 파산된 지 이미 오래인 오늘에 와서 일부 사람들은 제 2 국제당의 옛서고에서 그것들을 찾아 내여 재차 이 《양보》설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들이 말하는 대로 현 시기 《사회주의의 견인력이 강화된 새로운 조건》이 조성됨으로써 독점 부르죠아지가 과거와는 달리 온순하여졌으며 로동 계급에 대하여 《사회 경제적》 성격을 띠는 《양보》를 하는 것이 특징적인 것으로 되였는가?

현실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첨예화됨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이 더욱 횡포하여지고 있으며 간교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자본의 가중되는 착취를 제한하려는 경제적 투쟁에 대해서까지도 그들은 폭압과 회유, 기만 책동을 교묘하게 배합하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도 떠들고 있는 독점 부르죠아지의 이른바 《양보》에 관한 온갖 론의는 계급 협조에 대한 가장 《천진 란만한》 《만화》를 그려 보려는 어리석은 시도이다. 사실 그들은 부르죠아지의 《양보》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의 생활 형편이 전후 시기에 《개선》되였기 때문에 그들의 《적극적》 진출이 전후 《생산 장성》을 촉진하였고 《과잉 생산 공황의 첨예화를 억제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고 한다. 이것은 부르죠아지에게서 《양보》를 받게 된 로동 계급이 이 번에는 생산의 장성, 과잉 생산 공황의 첨예화를 억제하는 데 적극 작용하며 부르죠아지와 《협력》하여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여기에 맑스-레닌주의 계급 투쟁 리론에 대한 어떠한 시인이 있는가?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계급의 당면한 경제 투쟁과 여기에서의 부분적인 《양보》의 전취의 의의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함께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계급의 당면한 경제 투쟁을 절대화하며 이에 정치 투쟁까지 복종시키려는 개량주의적 《경제주의》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부르죠아지는 철면피하고 무분별한 야수로서 행동한다. 그들은 우둔한 것을 계속함으로써 사태를 첨예화시키며 자기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르죠아지가 이러저러한 소수의 피착취자들을 이러저러한 보잘 것 없는 양보로써 무마하지 않으며, 또한 그들이 이러저러한 부분의 피압박자 및 피착취자들의 이러저러한 운동 혹은 폭동을 진압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할 여하한 가능성도 절대로 없다고 〈증명〉해서는 안 된다》 (전집 제 31 권, 265 페지, 방점은 필자의 것).

부르죠아지는 자기의 뒤흔들리는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야수적인 폭력과 일시적인 《양보》를 교활하게 배합하고 있다. 부르죠아지의 《양보》란 부르죠아지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의 자본의 지배 형태이며 로동 계급을 우롱하는 자본의 제스추어에 불과하다.

로동 계급이 간고한 투쟁에 의하여 부르죠아지에게서 얻은 부분적인 양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 등귀, 세금 인상, 나라의 파쑈화 및 전쟁 등에 의하여 곧 사라진다. 따라서 그 누구도 부르죠아지의 《양보》설을 가지고 로동 계급의 빈궁화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사실이 그러한 것이다.

로동 계급의 절대적 빈궁화를 부인하기 위하여 일부 사람들은 이 외에도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하여 반맑스주의적으로 외곡한다. 로동 계급의 대렬을 모호하게 하려는 시도는 그의 대표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한계를 모호하게 하기 위하여 기사, 의사 등 인테리들까지 로동 계급의 대렬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들은 지어 독점 회사의 고급 관리 성원들까지 로동 계급의 구성에 포함시키고 있는 부르죠아 변호론자들의 주장에 바싹 접근하여 가고 있는 형편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로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을 높게 평가하여 로동 계급의 빈궁화를 부인하려는 목적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계급 규정은 맑스-레닌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레닌은 부르죠아 사회의 인테리를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수한 사회층》 또는 《프로레타리아트와 구별되는… 사회층》 (전집 제 7 권 2 분책, 119 페지)이라고 규정하였다.

로동 계급의 빈궁화를 부인하기 위한 이들의 온갖 기만 책동은 엄연한 현실을 가릴 수 없다.

현 시기 로동 계급의 빈궁화를 촉

진하는 요인들은 계속 작용하고 있으며 그 작용이 더욱 강화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최근에 존슨이 미국의 극심한 빈곤에 대하여 눈을 감을 수 없게 되여 《빈궁과의 전면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지만 이것은 근로 대중의 강력한 투쟁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회유, 기만책에 불과하며 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필요한 《인기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지어 그가 이것을 《약속한》 신년 《교서》를 랑독하던 순간에도 대통령 관저는 켄탁키, 버지니아, 펜실바니아 주들에서 온 빈민들의 시위 대렬에 의하여 포위되여 있었다고 한다. 독점 자본에 대한 공격을 동반하지 않는(존슨은 도리여 독점 자본의 리익을 대변하여 그들의 투자 의욕을 높인다는 구실 밑에 감세 계획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빈곤에 대한 《공격》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의 빈궁이 더욱 혹심하여지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가일층 첨예화되고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기구가 보다 강화되여 최대 독점들의 전횡이 더욱 극심하여지고 있다는 것이며, 최대 독점체 간 그리고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이 더한층 첨예화되여 감에 따라 시장과 세력권 쟁탈을 위한 투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쟁은 여러 나라 독점들로 하여금 《산업 합리화》와 생산비 저하를 위한 투쟁을 강화하게 하며 불가피적으로 로동에 대한 긴장도를 높이고 실업을 증대시키고 임금을 저하시키는 현대의 과정들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 경쟁의 부담도 또한 부단한 증가의 추세에 있다. 미국의 직접적 군사비는 1970년에 가서는 670억 딸라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미 제국주의 세계 제패 계획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민족 해방 혁명에 대한 교살 책동이 날을 따라 강화되는 조건에서 《전면》 전쟁과 《국부》 및 《특수》 전쟁의 인적 및 물적 담당자로서의 로동 계급의 부담도 더욱더 증대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적 압박이 더욱더 심해지며 로동 계급의 절대적 빈궁화도 더한층 촉진되게 되며 따라서 《수탈자의 수탈》을 위한 투쟁도 강화되리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 위정자들이 표방하는 《민족주의》의 정체

리 종 률

력사는 인민의 원쑤들이 자기의 정체를 가리기 위하여 왕왕 관록이 붙은 의상을 빌어 입고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애국 애족 운동이 앙양됨에 따라 미제의 주구들은 민족의 이름을 팔아 《민족주의》를 표방하여 나서고 있다.

민족주의—이것은 원래 자본주의 제도에 의하여 산생된 것으로서 부르죠아지가 《전 민족적인 리익》이라는 허위적 구호 밑에 자기들의 협애한 계급적 리익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착취 계급들은 부르죠아 민족주의 사상을 리용하여 민족적 압박을 합리화하며 민족들 간의 적대 관계를 선동하며 근로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려고 광분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립되는 이 부르죠아 민족주의를 반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한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온갖 민족주의를 다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권과 압제를 전제로 하는 압박 민족의 민족주의는 반대하나 불평등과 억압에서 해방되려는 피압박 민족의 민족주의는 결정적으로 지지한다.

피압박 민족의 민족주의에는 례외 없이 압박을 반대하며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일반 민주주의적 내용이 포함되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레닌은 자기의 저서 《민족 자결권에 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피압박 민족의 부르죠아지가 압박 민족과 투쟁하는 한 우리는 어느 때나,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또 누구보다도 결정적으로 그것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압박에 대한 가장 대담하고 철저한 적이기 때문이다…

피압박 민족의 부르죠아 민족주의에는 어느 것이나 압박을 반대하는 일반 민주주의적 내용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전집 제 20 권, 516~517 폐지).

다 아는 바와 같이 리 승만 괴뢰 정권하에서도 여러 가지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형태들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당시 위정자들이 제창한 민족주의는 남조선에서의 실제적 통치자인 미제의 전횡을 엄폐해 주는 《대통령》의 개인 독재를 보장하기 위한 구호였다. 미제와 리승만의 의사에 배치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모두 《민족 반역자》이라고 단정되였으며 극형의 대상으로까지 되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영웅적인 항쟁의 불길 속에 리 승만 독재가 붕괴되고 반미 사상과 자주 자립을 위한 민족적 지향

이 하나의 사회적 조류로서 대두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파산에 직면하게 되였다.

특히 민족적 리익의 철저한 옹호자인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를 받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우리 당의 주체 사상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의 빛나는 성과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 속에 대두하고 있는 자주 자립의 민족적 지향에 대해서 주목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미제는 자기의 주구에게 지시하여 《민족주의》를 표방케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민들의 환심을 사게 하며 위기에 처한 식민지 통치를 부지하여 보려고 타산하였다.

그러므로 남조선 위정자들이 표방하고 있는 《민족주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인민들의 계급적 각성을 제고하며 그들을 반미 구국 투쟁에로 동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워싱톤의 지시에 따라, 도꾜에 추종하여

현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민족주의》를 표방하여 나서고 있는 것은 워싱톤에서 만든 각본 대로 벌려 놓은 연극에 불과하다.

전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민족주의를 무시하거나 혹은 그 민족주의와 무관계하게 공산주의의 저지를 시도한다면 그 실패는 이미 운명 지어진 것이다》라고 민족주의의 《유용성》에 관한 실용주의 철학을 력설하였다.

미제의 조선 침략 정책 립안자의 한 사람인 스칼라피노라는 자도 1959년 미국 국회에 제출한 《콘론 보고》 중에서 《지금 아세아의 공산주의자들은 민족 운동에 편승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각 민족성과 그 문화를 리해하는 것이 곧 그 세력을 좌우하는 요체(要諦)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남조선에서 《민족주의》를 적극 리용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1953년에 꾸며진 로버트손-이께다 회담에서 로버트손이 일본의 재무장을 위하여 일본 인민에게 특히 민족주의를 부식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반동 세력이 반동적인 민족주의를 의식적으로 부활시키기 위한 시도는 이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그 뒤를 이어 주일 미국 대사 라이샤워는 일본의 소위 《근대화》에 대하여 말하면서 《민족주의》로써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防波堤)를 만들게 하라고 계속 주장하여 왔다.

아세아에서는 일본이 《서구라파적인 근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황당한 전제를 제멋 대로 만들어 놓고 후진국들은 일본을 표본으로 삼으라고 력설하는 이 자가 바로 남조선에까지 기여 들어 《한국의 근대화론》을 제창하면서, 미 일 제국주의에 굴종하는 《민족주의》를 설교하였던 것이다.

워싱톤의 지시에 따라 도꾜에서는 반동적이며 침략적인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실현하자는 《리론》들이 공공연히 류포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일본을 모방한 소위 《한국의 근대화론》과 함께 일본 침략자들에게 나라와 겨레를 팔아넘기려는 매국 배족의 《민족주의》 구호가 제기되였다.

남조선 위정자들이 표방하고 있는 《민족주의》에는 양키들과 일본 사무라이들의 호전적이며 침략적인 흉계를 보여 주는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이 없다.

그들은 자기들의 계급적 요구와 정치적 목적에 맞게 부르죠아 민족주의를 론술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 하며 《민족주의》의 추상적인 내용조차도 규정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

모든 것을 미제에 의존하는 것이 습성으로 된 남조선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민족주의》 내용을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이니 《반미 아닌 양키즘 배격》이니 하는 얼빠진 공담으로 밖에 표현하지 못 한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상전의 지시에 추종하여 독자적인 주견이 없는 것—이것이 바로 남조선 위정자들이 말하는 《민족주의》의 기본 특징인 것이다.

만일 그 정체를 캐여 본다면 그들이 《민족주의》의 구호 하에서 감행한 천추에 용납 못 할 죄행들을 규명할 수 밖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파산된 식민지 통치를 미봉하는 《묘책》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은 《민족주의》를 표방할 데 대한 상전의 지시를 조성된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를 미봉하며 자기들의 매국 배족적 정체를 엄폐하여 줄 《절호의 묘안》으로 접수하고 각종 《민족주의》 선전 사업을 집요하게 진행하여 왔다.

그들은 한편으로 각종 《매력 있는》 말들로써 자신들을 애국자로 분장하였으며 다른 편으로는 민족의 이름을 팔아 악랄하게 매국 배족 행위를 감행하였다.

박 정희 도당은 《자립 경제의 건설》, 《새 민족 문화의 창조》, 《민족 정기의 발양》, 《민족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의 구현》 등 기만적인 구호들을 빈번히 웨쳤으며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구호까지 들고 나와 인민 대중의 환심을 사 보려고 온갖 흉계를 다하였다. 또한 박 정희는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를 《한국 민족의 수호자》로 받들면서 온갖 매국 배족 행위를 감행하는 자기 자신을 파렴치하게도 조선 민족 전통의 《계승자》로 분장하여 나서고 있다.

그들은 미국 첩보 모략 기관의 지지하에 조작된 5.16 《군사 정변》이 반일 의병 투쟁, 갑오 농민 전쟁, 3.1 운동, 4월 인민 봉기 등의 《민족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날조하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엄폐물에 불과한 남조선 괴뢰 정권이 표방하는 《주의, 주장》은 한갖 인민들을 회유 기만해 보려는 빈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박 정희 도당이 《애국 애족》의 가면 밑에 밖으로 어떻게 나라를 팔고 외세에 아부 굴종하며 안으로 어떻게 동족을 탄압 학살하고 인민들을 도탄 속에 몰아 넣는가는 이미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박 정희는 《남한과 공동 운명체적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미국의 번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자기 상전 앞에서 맹세하고 그것을 가장 충실히 집행하였다.

박 정희는 남조선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미군 만행 사건을 로골적으로 비호하며 오히려 미제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과 반미 진출을 탄압하기 위한 법

적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남조선 위정자들의 매국 배족 행위는 일제에 대한 그들의 노예적 굴종과 그를 합리화하기 위한 친일 사상의 부식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일제의 손때 묻은 이 주구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친일 단체들을 조작하여 《한 일 간의 교량적 역할》을 놀게 하고 있으며 《한 일 친선》을 공공연히 선전하는 나머지 지어 《한일 녀자 프로 레스링 경기》를 진행하는 해괴망측한 놀음까지 벌려 놓고 있으며 일본 군국주의의 퇴페적이며 색정적인 사상 문화를 도서, 잡지, 영화, 레코드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

바로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하여 과거 일본 침략군의 특무, 장교들이 골간을 이루고 있는 침략의 척후 단체 《창가학회》와 《천리교》까지 왜색 문화와 함께 남조선에 침투하고 있다.

박 정희 역도는 《한국의 존재는 일본의 방위 그 자체》라느니 《제 2의 리 완용이가 되더라도》 《한 일 회담을 타결》하겠다느니 하면서 을사 오적을 무색케 하는 매국 배족 행위들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박 정희 역도가 말로써는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을 떠들면서 실지로는 2억 원에 해당하는 《국보적 유물》 4,000여 점을 해외에 수출 또는 파괴하는 등 민족 문화 유산의 파괴 말살 행위까지 감행한 사실이 최근 괴뢰 국회 내에서도 론의되였다.

《민족 주체 의식》, 《자주 독립》 등을 떠드는 이 괴뢰 도당이 바로 우리 민족을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식민지 예속화하기 위한 미제의 침략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여 우리 조국의 자주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의 지시 대로 남조선 위정자들은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동족 상잔의 전쟁 준비에 더욱 미쳐 날뛰고 있다.

그들은 있지도 않는 《공산 침략》을 운운하며 군사 연습, 전쟁 소동을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하는 한편 남북 간의 전쟁 도발을 위한 온갖 범죄적 소동을 벌려 놓고 있다.

남조선 괴뢰 도당이 3 년 동안 《민족주의》 구호를 웨치면서 실지로 해 놓은 것이란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과 민족의 리익과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자들과 진보적 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 학살한 것 뿐이다.

《민족 정기를 발양하며》, 《민족을 구원한다》고 떠들면서 그들은 동족 간에 적대 의식을 고취하며 남북 간에 불화의 씨를 뿌려 반목을 조성하려고 시도하였다.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매국 역도 김 종필은 통일 문제를 《서뿔리 서두를 것이 아니라 100 년 전쟁을 치르듯 대를 이어 가면서 다루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에게 민족의 량심이란 털끝 만큼도 없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이 상전의 지시 대로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민족 경제의 파괴 략탈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집행한 결과 남조선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엄중한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즉 남조선의 농업은 식량 소요량의 75%도 보장하지 못 하고 있으며 산업 원료의 대외 의존도는 거의 100%라는 놀라운 수'자를 보여 주고 있다.

《현 시점은 력사 상 최악의 경제 상태》(《부산 일보》)에 처했으며 《기아를 해방하겠다던 5.16의 공약은 자살 류행을 결과하고 중농 정책을 웨친 민정은 농민들의 입에 칡 뿌리를 틀어 넣었다》(《경향 신문》).

박 정희가 이 길만이 《조국을 현대화》하며 《경제를 재건》하고 《민족적으로 자립》하는 출로라고 떠드는 《민족주의》의 정체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민족주의》의 구호 하에 노리는 것

남조선 위정자들이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추구하는 목적은 우선 《민족주의》의 간판 밑에 악랄한 《반공》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특히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에 대한 인민 대중의 지향을 막아 보려는 데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군사 정변》 후에 각종 《반공》 선전 깜빠니야를 벌려 놓고 북반부에 대한 허무 맹랑한 악선전을 감행하여 남북 조선 인민들 간에 리간을 조성하고 남북을 대립시키며 남조선 인민들 속에 공산주의를 그 어떤 무서운 것으로 인식시켜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 《반공》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미제 침략자들이 여지 없이 유린한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권익》을 마치도 공산주의가 침해한듯이 악랄한 모략 선전을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공산당의 계급 투쟁 리론은 민족적 분렬을 가져 왔다》고 하면서 완전히 흑백을 전도한 기만적인 《반공》 넋두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이러한 책동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 남북 대립과 민족적 불화의 사상을 전파시킴으로써 민족 분렬을 영구화하며 인민들의 조국 통일 기운을 꺾으려는 망상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 민족 허무주의와 무기력한 패배주의 사상을 주입시킴으로써 인민 대중의 혁명적인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애국적인 반미 구국 투쟁을 좌절시키려는 것이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근면하고 슬기로운 조선 민족을 《한국식 게으름》과 《의타심》, 《리기주의》와 《사대주의》, 《파벌 의식》 등 《수치스러운 고질을 가진 민족》이라고 악랄하게 모독하면서 이 《렬악한 민족성》을 개조하며 공산주의와 계급 투쟁을 반대하는 《민족 협동 의식》을 주입시키는 《정신 혁명》과 《인간 개조》를 그들의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의 하나라고 설교하고 있다.

그들은 지어 외래 침략자들과 폭압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는 우리 인민의 애국적인 투쟁을 《민족성의 결함》이라고까지 모독하면서 바로 이 《결함》 때문에 《정신 혁명》이 시급한 문제로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반미 구국 투쟁의 길에 결연히 일떠선 남조선 인민에게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노예적 굴종을 감수하게 하려는 어리석은 술책인 것이다.

끝으로 미제의 주구 박 정희 도당이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노리는 것은 남조선에서의 전례 없이 강화된 파쑈

테로 통치를 《정당화》하며 극악한 친미 친일 주구로서의 자체의 정체를 감추고 자신들을 《민족적》 또는 《애국적》인 인물로 분장해 보려는 것이다.

남조선 군사 통치배들은 《단군 동상 건립》, 《신라제》, 《리 순신 장군 대제전》, 《률곡제》, 《춘향제》 등을 벌려 놓고 자신을 《민족적》인 색채로써 분장하기 위해 모략적인 흉계를 꾸미고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민족 전통을 계승하는 것처럼 자신을 분장하고 남조선을 일체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말살된 암흑 천지로, 수십만 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는 인간 도살장으로 전변시켰던 것이다.

그들은 《전 민족적 리익》의 허위적인 구호로써 남조선 로동 계급과 농민 등 근로 대중의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박 정희 도당의 《민족적 민주주의》 구호야 말로 자체의 파쑈적 본색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적 구호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실증하여 준다.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작년 11월에 연세 대학교 학생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군사 정부가 〈민족〉이란 말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자유 사상을 짓누르기 위한 복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폭로하였다. 다른 한 언론인도 박 정희 도당이 표방하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목표를 위한 리념》이 아니고 정치적 경쟁자들을 《사대주의자》로 몰기 위한 《구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박 정희 도당이 노리는 목적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족주의》 구호는 여지 없이 파탄되고 있다.

시체로 화한 《민족주의》

인민의 원쑤들이 공허한 《말의 기교》로써 인민 대중을 기만하여 권세를 누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 갔다.

괴뢰 정권을 점탈한 후 박 정희는 《민족주의》를 부르짖었으나 행동에서는 더욱 외세에 의거하며 매국 배족 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것은 결국 남조선 인민들의 격분을 자아 내게 하였으며 그들을 반제 반《정부》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6.3 봉기 때에 남조선의 애국적인 청년 학생들이 《반보수, 반매판, 반외압, 반신식민의 구국 항쟁》을 조직 전개한 것은 그의 뚜렷한 증거이다. 그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박살하라》, 《일제의 척후병인 일본 상사를 몰아 내자!》, 《일본 예속에 직행하는 매국적 〈한 일 회담〉을 전면 중지하라!》 등 일제의 재침을 규탄하는 구호를 웨치면서 투쟁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기만 선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란 말만 들어도 이가 갈린다》고 하면서 일제의 재침 책동을 폭로 규탄하고 있으며 동시에 박 정희의 매국 배족 행위를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정부는 매국적인 외교를 집어 치워야 한다. 툭하면 한 일 회담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서두는 너, 제 2의 리 완용을 자처하면서 하겠다는 너, 말마다 방정 맞게 국운을 걸고라도 하겠다는 너는 정말 이 나라의 정부냐? 일본의 정부(情婦)냐?》고 박 정희 역도를 비난하고 있다.

(《사상계》 1964년 4월 호 증간 호).

이와 함께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감정도 점차 높아 가고 있다.

인민들은 자기들의 실지 생활 체험을 통하여 미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됨이 없이는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항쟁에 궐기한 청년 학생들은 《미국은 한 일 회담에 관여 말라!》, 《미국은 가면을 벗어라》고 절규하였으며 미국인이 탄 뻐스를 포위하고 돌까지 던졌다.

남조선 인민들의 반일, 반미 투쟁의 근저에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지향이 놓여 있다.

6.3 봉기 시에 청년 학생들은 《민족의 단결 없이 남북 통일할 수 없다》, 《민족 분렬을 획책하는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웨쳤으며 남조선 출판물들에는 《한 일 회담보다 판문점 개방 회담이 더욱 절박하다》, 《북반부에서 제공하겠다는 백미 200만 석이나 받아 배급해 달라》(《경향 신문》 1964.5.12)는 등의 요구들이 더욱 빈번히 울려 나오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남북 조선 간의 서신 거래와 경제 문화 교류의 실행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6.3 봉기의 선두에 나섰던 서울 대학교 학생들이 《북조선과의 교류를 실현하여야 한다》, 《일본과 결탁하여 후한을 남기기 보다는 남북이 합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학생들을 시위 투쟁에 나서게 했다》고 말한 것은 이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현 난국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외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혁신계를 석방하여 각계 각층을 총 망라한 범국민적인 통일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령남 일보》 1964.4.30)라고 공개 좌담회 석상에서 주장하는 인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대학교 학생들은 공개적인 토론회 석상에서 박 정희 도당이 표방하는 《민족주의》에 대하여 《… 외원을 받으며 경제적 예속에서 탈피할 수 있는가?》, 《민족 해방 운동과 같은 민족주의의 내용을 빼 먹고 우리 나라에서 정치적 통일성 및 국민에게 조직과 질서만을 강조하면 민족주의의 력사적 의의가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동아 일보》 1963.11.6) 등의 질문을 김 종필에게 들이대면서 괴뢰 도당이 표방하는 《민족주의》는 사실 상 인민들을 기만 우롱하며 자기들의 매국 배족적 정체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간교한 술책이라는 것을 폭로하였다.

특히 지난 5월 20일 애국적인 청년 학생 5,000여 명은 서울 한복판에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까지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이 《장례식 조사》에서 맨 먼저 민족적 량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시작한 자가 바로 박 정희 도당이라고 지적하고 《시체여 너는 오래 전에 이미 죽었다. 죽어서 썩어 가고 있었다. 넋 없는 시체여, 반민족적 비민주적 민족적 민주주의여 고향으로 돌아가라, 죽어서라도 돌아 가라, 안개 속으로 돌아 가라》라고 절규하였다.

이제 더는 박 정희 도당으로 하여금 감히 악취 풍기는 《민족주의》 구호를 되뇌이지 못 하게 되였다. 《민족주의》 구호는 반미 구국 투쟁에 일떠선 인민 대중을 폭압하며 평화적 자주 통일을 방해하며 미 일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팔아 넘기는 죄행의

위장물이며 방패이다.

아무리 횡포한 폭압으로써도 민족적 지향을 억누를 수 없게 되였고 그 어떤 한 회유 기만으로도 인민 대중의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킬 수 없게 된 박 정희 도당은 미 일 제국주의의 추악한 주구로서의 정체를 더는 감출 수 없게 되였다.

박 정희 도당은 그 어떤 《민족주의》적 구호로써도 각성된 인민들을 기만할 수 없다.

결국 시체화된 《민족주의》 구호는 인민들의 조소와 분격 속에 박 정희 도당의 추악한 무리들과 함께 영원히 매장되고야 말 것이다.

근로자 제 16 호 (루계 254 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8월 17일 발행• 1964년 8월 20일

ㄱ—430504 값 40 전

/ 30527 R
Americké velvyslanectví /UF/
Tržiště 15
P R A H A 1. Malá Strana